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2. 13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2/5~2/9)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예상보다 강한 미국 1월 비농업 고용지표와 연준 의장의 금리인하 관련 신중한 스탠스 강조에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되며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중공업체 수주 소식과 네고물량 출회 등 수급상 매도 우위와 중국 당국의 중시 부양 지원책 소식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유입 및 위안화 강세 영향 속 하락
- 중반, 연준 위원들의 조기 피벗 기대 경계하는 발언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도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위안화 강세 되돌림 등이 더해지며 소폭 상승
- 후반, BOJ 부총재의 도비시 발언으로 인한 엔화 약세 영향과 수급상 결제수요 등 매수세에 하단 지지되며 1,320원대 후반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1월 CPI 발표 전 시장의 경계감 강화 요인 등의 반영 속에 다소 원화 환율의 상승 압력이 높은 전망. 여기에는 CPI 전망치가 전년대비 2%대에 진입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여전히 미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언급 등이 경계심리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여기에 최근 수급상의 결제 수요 유입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점도 환율 상승에 지지 요인으로 판단
- 다만, 1,300원대에서의 외환 당국의 불편함 등이 상방 압력 제한할 가운데 1,300원대 초반 등락이 다소 이어질 전망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7.0	1339.3	1322.7	1328.2	-8.8

예상거래범위

1,320원 ~ 1,340원



엔·유로화 동향 (2/5~2/9)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 당국자들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측면이 달러를 지지하면서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 출발. 이어 중국 정부의 중시 부양 의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와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한 유럽증시 상승 등에 강세 전환
- 중반, 슈나벨 ECB 집행이사가 물가 반등 리스크와 조기 정책 전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영향으로 강세
- 후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에도 뉴욕증시 상승세 등 위험선호 심리 반영하며 강세 지속. 이어 주 후반, 미 CPI 수정치 하향 조정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전망과 Fed 금리인하 기대에 상대적 강세 흐름 속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93	1.0795	1.0723	1.0786	-0.0007

엔화 동향

- 주초,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 발언에 미 국채금리 상승에 미-일금리차 확대된 영향으로 엔화 약세 출발. 이어 BOJ 총재의 지속적인 물가 목표 달성 시 ETF 매입 종료 논의 언급과 미 상업용 부동산 이슈 및 지역은행 리스크로 인한 미 국채금리 하락 등에 강세 전환
- 중반, 시장 기대보다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뉴욕증시에서의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반영하며 약세 재전환
- 후반, 우치다 BOJ 부총재가 정책 수정 후에도 완화적 금융 여건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엔화 약세 압력 심화. 이어 주 후반, 우에다 BOJ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 시사하면서도 비둘기적 스탠스 보인 영향으로 하단 지지되는 가운데 149엔대에서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8.3	149.6	147.6	149.3	-1.0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2/5~2/8]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1월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두배 가까이 웃돈 가운데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 영향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파월 의장의 CBS프로그램에서의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영향과 서비스 PMI 지표 호조 등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 연동에 따라 장기 구간 중심으로 소폭 상승
- 중반 들어, 주요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금리 정책 발언 등 다소 매파 성향 지속 등의 기존 시장 반영 이슈 외 다소 제한된 정보 속에 약보합 흐름으로 전환
- 후반 들어, 미 연준 당국자들의 신중한 금리인하에 무게를 실는 발언이 이어진 측면이 반영된 부분과 국내 수급상 국고 10년 입찰을 준비하는 움직임 등에 따른 국고채 시장 약세 압력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1월 비농업 고용지표의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견조함에 따른 달러 강세와 미 국채금리 반등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된 가운데 저PBR 종목에 대한 기대감 완화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기관 차익 실현 강화 등으로 하락 추세 지속
- 중반 들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 업종 들에 대한 관심이 재차 강화된 분위기 속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동반 매수세 강화 등으로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국 기업 4분기 실적 호조에 뉴욕 증시 상승 영향을 반영 강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매수 유입 확대 등으로 상승 추세 이어지며 마감